

이달의 이슈 | 01

핀테크를 보다: 지금 이곳, 한국에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keunju.lee@daum.net

장면 1. 50대 초반의 김 모 씨는 캐나다 토론토에 유학 중인 둘째 아들의 생일이 바로 내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오늘 아침 가족의 식사 자리에서 알아챘다. 지난해에도 아들 생일이 지난 후에 부랴 부랴 선물을 챙겨줬던 기억이 떠올랐기에 이번에는 그냥 간편하게 아들 녀석 스스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돈을 보내주려고 생각했다. 시차를 먼저 확인하고, 깨어 있을 듯해 곧바로 메신저로 말을 던졌다. 거의 매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메신저를 통해 곧바로 200캐나다달러를 보내줬다. 아들 녀석이 감사 연발이다. 대학 내 은행이나 학교 근처 은행에서 오늘 중으로 찾을 수 있으리라.

예전 같으면 해외에 송금할 때 보통 3~4일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수료도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메신저를 통한 P2P 송금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어느 나라든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를 통한 직접 송금이 실시간 이뤄지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는다.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경력: 전 IBK기업은행 스마트금융부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뉴욕지점 IT 매니저

장면 2. 10년여의 직장생활을 끝내고 호기롭게 창업했지만 아직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최 모 사장은 최근 될 듯 말 듯한 거래 건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사업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거래처에서의 입금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 당장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제1 금융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하는 처지여서 고민 끝에 최 사장은 P2P 대출 마켓플레이스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까다롭지도 않고, 사채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어서 최근 P2P 대출은 동료 사업자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절차도 간단하고, 의사결정도 빨라서 급한 상황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그다지 주저하지 않았다.

장면 3. 예상치 않은 여윌돈 1,000만 원이 생긴 주부 김 모 씨는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하다가, 위험도 높지 않고 수익은 은행보다 훨씬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신개념의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은 있어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 등장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적은 금액도 낮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어 ‘자문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로봇은 점점 더 똑똑해져 낭패를 볼 위험도 매우 낮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안심하고 있다.

이런 광경은 모두 지금 또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로 가능한 일이다. 소위 ‘천송이 코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의 다양한 ‘페이(Pay)’ 서비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서비스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매우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핀테크’의 대표격이다. 설령 핀테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생활 속에서 ‘핀테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핀테크에는 결제 분야를 시작으로 송금, P2P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며,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금융 생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까지 망라하고 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어디선가 개발되어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1. 핀테크의 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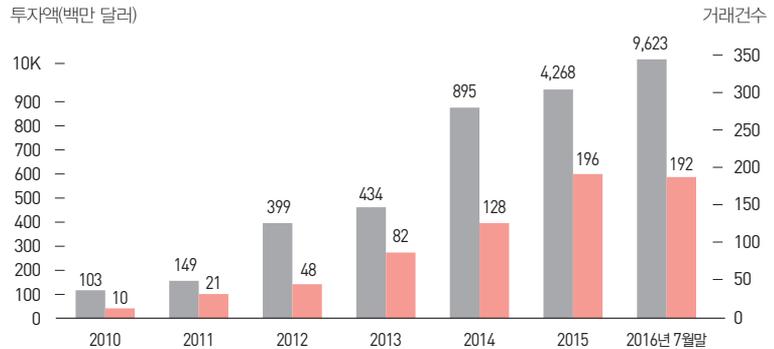
그렇다면 핀테크는 왜 부상하게 되었을까? 우선 기술 환경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술’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PC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CPU의 처리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지만,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하드웨어 저장장치의 용량도 마찬가지다. 용량은 팽창하고 있지만 가격은 푹푹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를 빼놓을 수 없다. ‘손 안의 컴퓨터’라는 말이 낫설지 않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성능은 예전의 PC에 못지않을 정도가 되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커넥티드(connected)’ 생태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걸어 다니는 컴퓨터’를 누구나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굳이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PC를 앞에 두고 ‘무엇인가’를 해야 했던 ‘제약’이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금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변한 것도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서 소비자는 ‘은행(Bank)’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 즉 ‘뱅킹(Banking)’을 원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특히 기술의 진화, 스마트폰의 보편화 등과 맞물려서 수많은 기술업체와 스타트업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대형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러 금융 서비스의 하나하나를 수많은 기술업체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은행의 ‘언번들링(unbundling)’이 가능해질 정도에 이르렀다. 즉, 기존 대형 은행의 기능을 수많은 스타트업이 제각각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들의 총합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또한 최근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는 젊은 층, 즉 ‘밀레니얼 세대’들이 은행에 가기보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적 변동이 더 이상 낫설지 않게 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이다.

특히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핀테크 투자에 최근 중국이 가세하면서 그 중심축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핀테크 분야 전문 조사업체인 CB인사이드(CB Insights)와 컨설팅업체인 액센츄어(Accenture)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글로벌 시장의 핀테크 투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북미 지역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아태 지역에서의 투자 금액은 북미 지역에서 기록한 45억 8,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유럽에서의 투자 금액인 18억 5,000만 달러보다 다섯 배 가량 많은 수치이다. 올해 7월말까지 아태 지역의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자 금액은 2015년에 기록한 42억 6,000만 달러의 두 배가 넘는 96억 2,000만 달러에 이르면서 핀테크 벤처 투자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료 액센츄어, CB인사이드, 2016.08

〈그림 3〉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핀테크 투자금액 추이: 2010~2016년

3. 국내에서도 활기 기대

핀테크 분야에서 견실한 생태계가 조성되거나 주목받는 곳은 어디일까? 또 한국은 핀테크의 허브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을까?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가 세계 21개 글로벌 허브의 핀테크 분야 현황을 점검하는 보고서(Connecting Global FinTech: Hub Review 2016)에 따르면 영국과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미국의 뉴욕과 실리콘밸리, 그리고 홍콩 등이 선두권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이들 선두권에 다소 뒤진 두 번째 그룹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수수료수의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금융 산업 환경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핀테크 기업이 다양한 유형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중국인들을 천송이 코트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됐던 Ac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과 결제를 가능하게 한 간편결제는 십여 개가 넘는 서비스가 각축

을 벌이며 생활 속의 금융으로 자리를 잡았다. 가맹점 단말기 없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스마트폰만으로 매매 대금 결제가 가능한 NFC방식의 ‘폰투폰 결제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과 P2P 대출이 낯설지 않은 일상적인 금융 용어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던 개인 소액투자자도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저가의 수수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주 지수 성능 점수(Index Performance Score)가 낮을수록 핀테크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

자료 딜로이트, 2016.09

〈그림 4〉 글로벌 핀테크 허브 비교

한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핀테크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싹트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4월에 출범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현재 14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곧 200개 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하게 숫자의 증가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별 풀뿌리 핀테크 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활력 있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은행들도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쟁자가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틀을 제공하는 금융 당국이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움직임에도 함께 호응하려고 애쓰며,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다.

4. 이해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핀테크의 효과가 크지만 우물가에서 승냥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의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진화, 발전이 쌓이면서 더 소비자 중심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속속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기존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 당국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핀테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런던에 조성된 카나리 워프와 같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특별 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부상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하여 골목 상권이나 서민의 소비지출 현황 등을 분석해 공공 서비스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